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6(금) ~ 2024.2.1(목)

제공일시 2023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6(금) ~ 2024.2.1(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온실가스 5억 톤 감축 새 규정 채택

- 유럽 이사회는 불소화가스(F-gas)와 오존층 파괴 물질(ODS)을 포함한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함
- 불소화가스 및 ODS는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되며 냉장, 에어컨 및 히트 펌프 장비를 포함한 가전제품에 사용됨
- 새로운 규제는 불소화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소비형 수소불화탄소(HFCs)를 2050년까지 완전히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9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SG투데이 2024.1.29) 마크 시걸 기자

### 2. 삼성 테일러 공장 보조금 '청신호'... 美 반도체지원법 3월부터 집행 전망

-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뤄왔던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급을 3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임. 11월 대선을 앞두고 격전지에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임
- 2025년으로 미뤄졌던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도 속도를 내게 됨
-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주 내 주요 반도체 회사에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함. 발표 시기는 오는 3월 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교서 직전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보조금 지원은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무기 관련 첨단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생산보조금(390억달러(약 51조원))와 연구개발지원금(132억달러(약 17조원)) 등 5년간 527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칩스법에 따른 것임

(헤럴드경제 2024.1.29) 원호연 기자

### 3. GRI, 새로운 생물다양성 표준 출시

- GRI가 새로운 생물다양성 표준(GRI 101: Biodiversity 2024)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생물다양성 영향,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GRI는 TNFD, EFRAG, SBTN 및 WBA 네이처 벤치마크를 포함한 기관과 협력해 보고 표준 및 시스템 간의 조정을 지원했다고 덧붙임
- 새로운 표준은 사업 현장 및 규모에 대한 상세한 생물다양성 정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한 보고를 포함함. 또, 토지 사용, 기후 변화 및 과도한 개발에서 오염 및 침입종에 이르기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동인에 대한 새로운 공개를 포함하며, 사회 및 인권에 대한 영향 요구사항, 조직이 이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함
- 새로운 표준은 2026년 1월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GRI는 향후 2년 동안 얼리어답터와 표준을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ESG투데이 2024.1.25) 마크 시걸 기자

## 1.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전담반(TF)' 신설

- 환경부가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29일 오후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기획회의 (주재 환경부 장관)를 개최함
- 환경부는 환경정책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후속 조치 △치수 체계(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 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반을 신설함
-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임. 환경부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지디넷코리아 2024.1.29) 주문정 기자

## 2.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1일 밝힘.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77억원임
-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와 사업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임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임

(MTN뉴스 2024.1.31) 이근호 기자

## 3. 올해 국가전략기술 5조원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 정부가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을 5조원 규모로 집중 투입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및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기술패권을 쥐겠다는 각오임
-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전년(4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액된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힘
-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을 보면 반도체는 5635억원에서 6362억원으로 늘어남.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함
- AI는 7051억원에서 7772억원으로 늘어남.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함

(대한경제 2024.1.29) 이근우 기자

## 4. “韓 미래 성장 달렸다”... 금융 당국, 은행과 기후 위기 대응 펀드 조성

- 금융 당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펀드를 조성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저감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앞장서는 기업이 원활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월 중 이런 내용의 기후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함
- 공동펀드를 통해 2030년까지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돕고자 함
- 또, 제조업체의 탄소 저감 설비 투자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함. 이를 위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임

(조선일보 2024.1.30) 김보연 기자

## 1. MS, 자연기반 토양 탄소 제거 스타트업 ‘그래스루트 카본’과 협약 체결

-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연 기반 토양 탄소제거 솔루션 스타트업인 ‘그래스루트 카본(Grassroots Carbon)’과 토양 탄소배출 크레딧을 제공해 30년 동안 격리된 추가탄소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음
- 방목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패스트라우트맵(FastroutMap)’과 탄소크레딧 측정업체인 ‘소일밸류익스체인지(Soil Value Exchange)’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이 회사는 재생 방목 관행을 통해 방목지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 미 전역의 목장주들과 협력하고 있음
- 땅에 저장된 탄소 저장량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 샘플링을 측정하고 탄소배출권 절차를 대행함

(ESG투데이 2024.1.31) 마크 시걸 기자

## 2. 리오 틴토, 호주 태양광 발전 협정 통해 퀸즐랜드 알루미늄 프로젝트 탄소 배출량 감축

- 영국-호주 광산 회사 리오 틴토(Rio Tinto)가 호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PV)로부터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공급받아 퀸즐랜드주 글래드스톤 알루미늄 프로젝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함
- 리오 틴토는 덴마크 재생에너지 회사 유러피언 에너지(European Energy)의 호주 자회사와 25년 전력 구매계약(PPA)을 체결함
- 이 계약에 따라 리오 틴토는 2026~2027년경 가동될 예정인 1.1GW 규모의 어퍼 칼리오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전체 출력을 구매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1.29) 김진영 기자

## 3. 일본 NYK,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발주

- 일본 선사인 NYK가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암모니아운반선 발주에 나섬
- 27일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NYK는 자국 조선사인 JMU(Japan Marine United)에 4만<sup>m</sup>³급 암모니아운반선 1척을 발주함. 이 선박은 아리아케조선소(Ariake Shipyard)에서 건조해 오는 2026년 11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방식으로 건조됨
-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발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를 위해 Japan Engine Corp가 메인 엔진 제작에 나서며, IHI파워시스템이 보조 엔진 제작을 담당함

(EBN 2024.01.27) 신주식 기자

## 4. 중국, ‘배터리 교체 전기차’ 보급 가속도… CATL, 디디와 합작

-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寧德时代 닝더스다이)은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과 배터리 교체 기술에 초점을 맞춘 합작 벤처를 세웠다고 28일 중국 언론이 보도함
- CATL은 “이번 제휴로 두 회사는 신속하게 배터리 교환소를 구축하고, 교환 기술에 대한 차량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 CATL과 디디의 합작 발표는 지난달 말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배터리 교체 기술에 대한 지원을 재차 강조한 데 이은 것이라고 SCMP는 전함

(오피니언뉴스 2024.1.29) 이상석 기자

## 5. 닛산, 저가형 EV 배터리 자체 생산 돌입… 2026년 이후 탑재 예정

- 닛산자동차가 니켈 등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저가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힘
- 2026년 이후 신중국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EV)에 탑재할 예정임
- 저렴한 인산철을 사용하는 이번 배터리는 현재 주류 배터리보다 항속거리는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배터리 비용을 20~30% 줄일 수 있음. 이는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이어져 신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이코노믹 2024.1.28) 노정용 기자

## 1. 현대차, 탄소 줄이는 ‘바다숲 조성 사업’ 나선다

- 현대차가 31일 울산시·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현대차는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바다숲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오는 2027년까지 울산시 동구 주전동과 북구 당사동 2개 해역에 총 3.14km<sup>2</sup>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총 20억원을 투입하고, 바다숲 조성을 통해 확보된 탄소 크레딧 활용 방안과 바다숲 블루카본 자원량 조사 등에 참여할 방침임
- LG화학, 효성, KB국민은행 등 생물다양성을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에 뛰어들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노컷뉴스 2024.1.31) 윤준호 기자

## 2. 두산에너지빌리티, 태국에 CCUS 등 무탄소 발전기술 공급 추진/두산에너지빌리티, 베트남 친환경 발전 사업 구체화… 암모니아 이어 SMR도 관심

-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태국전력청(EGAT)과 ‘CCUS 및 무탄소 발전기술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힘
-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태국 내 운영 중인 발전소에 CCUS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암모니아 혼소, 신재생, 수소 등 무탄소 발전기술 도입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함
- 한편,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베트남전력공사(EVN)와 만나 청정에너지 협력을 다짐
- 해상풍력과 소형원전, 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두산의 친환경 솔루션을 활용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도움

(연합뉴스 2024.1.29) 김보경 기자

(더구루 2024.1.29) 오소영 기자

## 3. SK, 필리핀 탄소배출권 확보 프로젝트 베일 벗었다

- SK그룹이 필리핀에 숲 복원 사업을 검토함. 국내외에서 10년 넘게 추진한 조림 사업의 노하우를 필리핀에 접목해 산림 황폐화를 막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해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함
- 29일 빌요나리오 등 외신에 따르면, 카를로스 프리모 다비드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NER) 부차관은 “SK가 오로라와 키리노 지역에 재산림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힘. 이어 “SK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우리는 원하는 아바카나 커피, 등나무 등 원하는 식물을 심고 열매를 재배할 수 있다”고 덧붙임
- SK그룹은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앞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움. 이를 위해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더구루 2024.1.29) 오소영 기자

## 4. S-OIL, 폐식용유로 저탄소 연료 만든다

- S-OIL이 국내 정유사 최초로 생산 공정에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친환경 제품 생산에 나섬
- S-OIL은 29일 친환경 화학 제품 양산을 위해 생산 공정에 바이오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초도 물량을 투입하기 시작함
- S-OIL은 바이오 원료와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 공정에 원유와 함께 투입해 탄소집약도가 낮은 저탄소 연료유(지속가능항공유, 차세대 바이오디젤)와 친환경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할 예정임

(해럴드경제 2024.1.29) 한영대 기자

## 5. LG엔솔, 日 이스즈모터스에 배터리 공급… 1조원 규모 예상

-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상용차 1위 업체인 이스즈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함
- LG에너지솔루션은 이스즈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공시함
- 공급 물량이나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약 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계약 기간은 2026년 말로 전해짐

(헬로티 2024.1.27) 이창현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26(금) ~ 2024.2.1(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미 에너지부, 탈탄소화 기술에 3400억원 투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산업 탈탄소화 기술에 대해 2억5400만달러(약 3400억원)의 투자를 발표했다고 카본헤럴드, ESG투데이 등이 29일(현지시각) 보도함
- DOE는 1억7100만달러(약 2300억원)를 지원하는 49개 프로젝트를 공개했고, 나머지 8300만달러(약 1100억)에 대해서는 연구 프로젝트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함
- 21개 주 49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기관별로는 학술 기관이 22개, 민간 기업 16개, DOE 국립 연구소 8개, 비영리 단체 3개임. 선정된 49개 프로젝트는 화학 산업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응용 연구, 개발, 실증(RD&D)을 진행함
- 프로젝트 선정은 △산업열 탈탄소화 △저탄소 연료 활용 R&D △탐색적 교차 부문 R&D △화학물질 탈탄소화 △철강 탈탄소화 △식음료 제조 탈탄소화 △시멘트 및 콘크리트 탈탄소화 △임산물 탈탄소화 등 8가지 주제 영역에서 이뤄짐
-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프로젝트는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의 ‘오하이오 철강 공장 SOEC 수소 직접 환원 시연(Demonstration of a SOEC Hydrogen Direct Reduction (HDR) at the Toledo, OH Steel Plant)’ 프로젝트로 1000만달러(약 133억원) 지원을 받음
- 제니퍼 그랜홈 DOE 장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의 공장 및 산업 중심지에서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산업 부문과 노동력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미국 청정 에너지 미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가속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함
- 이번 투자는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s Initiative) 중 산업용 가열 공정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산업열 부문(Industrial Heat Shot)과 연료 및 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청정 연료 및 제품 부문(Clean Fuels & Products Shot)의 지원 사업으로 이뤄짐
-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어려운 기술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10년 이내에 청정에너지 솔루션의 획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기술 발전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좋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의 제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투자 의제의 핵심이라고 밝힘
- 2021년 수소(Hydrogen Shot)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의 어스샷이 발표됨

(임팩트는 2024.1.31) 유인영 기자